

# KUKJ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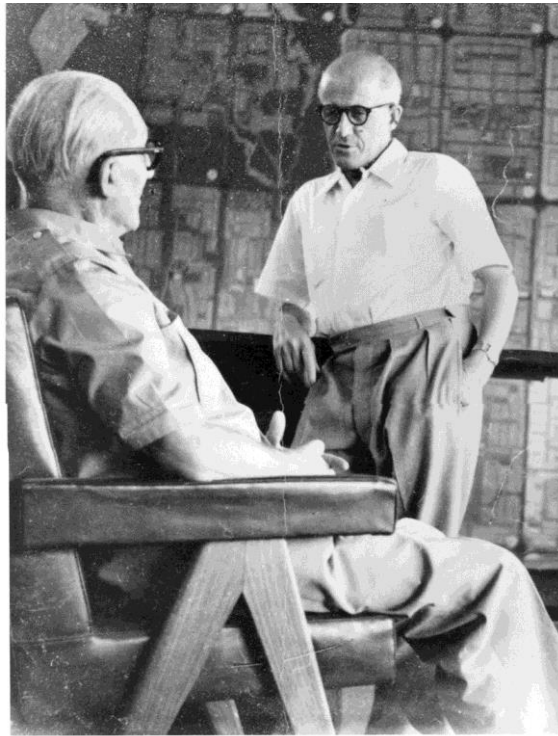
PRESS RELEASE

## LE CORBUSIER PIERRE JEANNERET

CHANDIGARH, INDIA, 1951-66

2016. 4. 26 - 5. 29

PRESS CONFERENCE: 4. 26, 2 PM



인도 찬디가르에서 르 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 © FLC/ADAGP, 2016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찬디가르 시에서 피에르 잔느레는 그만의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건축능력을 구현하였다. 나는 그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빛을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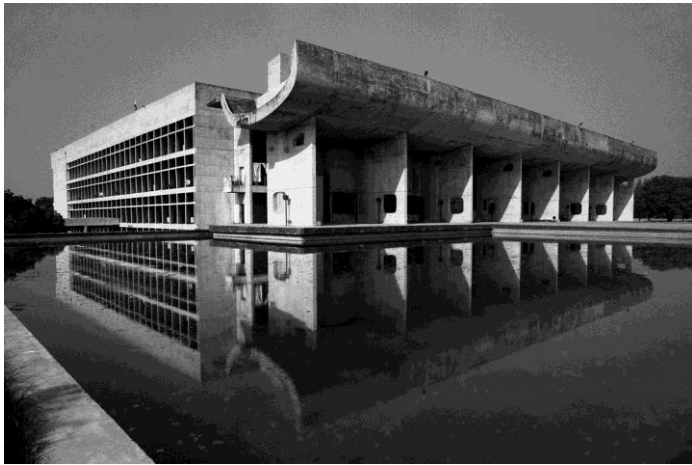
- 르 코르뷔지에

국제갤러리는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 전시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스위스계 프랑스인 모더니스트이자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피에르 잔느레 (1896-1967)의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951-66» 전을 2관에서 개최한다.

국제갤러리는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 전을 통해 근현대 디자인 역사를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및 장인들을 국내에 선도적으로 소개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프랑스 모더니즘 디자인의 거장들인 «장 프루베» (2005년), «샤를로트 페리앙» (2007년), «장 로이에» (2013년)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피에르 잔느레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서 진보적인 건축철학을 추구해왔다. 그는 실용적이면서도 미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당시 특정계층만이 향유해왔던 디자인의 저변을 확대하여 도시 빈민지역 개발 및 문화적 복구를 위한 공공적 건축 프로젝트들에 주요하게 참여한 바 있다.

잔느레는 그의 사촌이자 널리 알려진 현대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와 50여 년간 협업하며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르 코르뷔지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잔느레는 실제로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었던 르 코르뷔지에와 달리 섬세하고 소심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손재주가 많았던 인물이었으며, 르 코르뷔지에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디자인의 실제적인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찬디가르 국회의사당 전경, 인도, 2008  
Photo © Ben Lepley, 2016,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이번 전시는 피에르 잔느레와 르 코르뷔지에의 대표적인 공동 프로젝트이자 20세기 중반 인도의 독립 이후 진행된 산업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찬디가르 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들의 이상적인 건축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련의 디자인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 작품으로는 당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내건축에 따른 가구 및 공공 디자인에 참여되었던 간이침대, 서랍장, 소파, 도서관책상 등이 있다.

1951년 시작된 찬디가르 프로젝트는 인도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동시에 진보적이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복합적인 도시계획 프로젝트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기존의 도시들을 개발하여 국가의 새로운 출발을 목표로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Punjab) 주의 찬디가르 시(市)를 국내의 세종시와 같은 정부 관할 행정 지역으로 기획한다. 인도 정부는 1950년 피에르 잔느레와 르 코르뷔지에에게 이 프로젝트를 의뢰, 이후 영국 출신 부부 건축가인 맥스웰 프라이(Maxwell Fry)와 제인 드류(Jane Drew)와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다.

이들은 찬디가르를 새롭고 현대적인 건축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인도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디자인을 발표하였으며, 인도의 특수한 기후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물들을 완비함으로써 인도 현지인들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신체비율과 황금비를 활용한 치수체계 모듈러(Modulor)를 기반으로 도시의 거시적인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직선 위주 도로로 1200x800 헥타르 단위를 그리드로 구획,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기능을 구분하였으며, 국회의사당, 의회, 사무국, 고등법원 등 주요 행정건물들을 설계하였다.

피에르 잔느레는 찬디가르 건축사무소의 책임자로서 15년간 인도에 머무르며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리감독을 총괄했다. 대표적인 건축 사례로는 간디 도서관(Gandhi Bhawan)<sup>1</sup>을 비롯하여 공립학교, 문화시설, 그리고 서민을 위한 다세대 주택단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잔느레는 인도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연구했다. 그 예로 습하고 더운 인도의 기후에 따라 통풍이 원활하도록 모든 건물 앞에 베란다와 현관지붕을 설계하였고, 인도의 전통 공예와 재료를 접목시킨 가구 디자인을 도입,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목재, 대나무, 줄기 그리고 건축자재들을 활용한 책상, 의자, 책장, 스툴, 소파, 램프 등에 이르는 다양한 가구들을 디자인 및 제작했다.



도서관 책상(Library Table), ca. 1960, 108(H)x243.8(L)x121(D)cm  
 사진: Keith Park,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특히 잔느레의 고유한 X, U, V 형상의 미니멀한 가구디자인은 인도 현지의 토속적인 재료와 장인들의 전통적인 공예기술의 결합으로 독특한 지역적 정서를 보여준다. 견고하고 균형 잡힌 형상적 미감은 티크 목재<sup>2</sup>와 자단(紫檀)<sup>3</sup>을 정교하게 가공한 사례로써 “실용적인 것의 미학”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이 가구들은 단순한 디자인과 최소한의 재료들을 활용하여 이후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카스트제도의 잔재가 남

<sup>1</sup> 간디 도서관은 마하트마 간디의 저서와 연관기록들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펀자브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작은 연못 위에 세워져 있으며 연꽃 모양으로 설계되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sup>2</sup>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활엽수로, 노란색을 띠는 갈색이며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습기에 휘거나 갈라지지 않고 방충효과가 뛰어나므로 내구성이 필요한 건축재, 가구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sup>3</sup> 남인도 및 스리랑카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로 목재가 자줏빛이고 강도가 매우 단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있는 인도 내 사회에서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통나무” 커피테이블(“Tree Trunk” Coffee Table)과 “캥거루”의자(“Kangaroo” Chairs)  
사진: Keith Park,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그 외에도 잔느레는 현지의 젊은 건축가들을 고용, S.D. 샤프마 등과 같은 건축가들을 키워내며 후학을 양성, 향후 인도의 모더니즘 건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피에르 잔느레**는 18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으며 1921년 파리 에콜 데 보자르(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를 졸업하였다. 1923년 후일 필명 르 코르뷔지에로 잘 알려진 그의 사촌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Charles-Édouard Jeanneret)와 파리 세브르 35번가에 건축사무소를 차렸다. 온화한 성품의 잔느레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근대주의자였던 르 코르뷔지에의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20세기 유럽의 주요 건축물로 꼽히는 사부아 주택(1929), 파리 국제대학기숙사인 시테 유니베시테르(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의 스위스 관(1932-33) 등을 함께 설계하였다.

잔느레는 건축뿐 아니라 가구에 관한 디자인 능력이 탁월했다. 남다른 손재주와 언제 어디서든 재료에 구애 받지 않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며 한 예로 그의 가까운 동료였던 장 프루베(Jean Prouvé)는 1982년 ‘지구엔 나무와 돌만 남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건축가’라고 언급한바 있다.

1929년에는 연례로 개최되는 파리에술가들의 등용문인 전시 살롱 도톤느(Salon d'Automne)에 샤를로뜨 페리앙(Charlotte Perriand)과 르 코르뷔지에와 협업한 디자인 가구들을 출품했고, 1946년 미국의 유서 깊은 가구디자인회사 Knoll사의 의뢰를 받아 두 개의 V가 겹쳐진 모양을 띤 Model 92 Scissors Chair, 일명 가위형태의 의자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잔느레는 필생의 역작으로 평가 받는 찬디가르 프로젝트에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참여, 15년간 찬디가르 도시내의 주요 행정 및 공공 건물의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과 연계되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가구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찬디가르 건축학교의 교장으로서 현지인들에게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을 전파 했으며,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편자브 주의 수석 건축가 및 도시계획연구팀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후 인도의 순차적인 도시 개발에 따라 델리 남부에 위치한 선더나가르(Sundar Nagar) 및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최대의 도시 아마다바드(Ahmedabad) 등 타 도시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후 잔느레는 1965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고향인 제네바로 돌아갔으며, 1967년 사망하였다.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찬디가르의 수크나 호수에 뿌려졌다.



“캥거루”의자(“Kangaroo” Chairs), ca. 1955, 58.5(H)x55(L)x67(D)cm, 사진: Keith Park,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통나무” 커피테이블(“Tree Trunk” Coffee Table), ca. 1954-55, 56.5(H)x86(L)x83.5(D)cm, 사진: Keith Park,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Contact: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mailto:zoe@kukjegallery.com))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ID: kukjegallery PW: kukje

경로: [webhard.co.kr](http://webhard.co.kr) > 2016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인도 찬디가르 1951-66

##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mailto: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http://www.kukjegallery.com)